

현대차·기아, 500억弗 ‘수출의 탑’… 무역수지 흑자 이끌어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현대차 300억弗, 기아 200억弗
조세·고용 등 경제 중추적 역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다.

현대차·기아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현대차가 300억불 ‘수출의 탑’, 기아가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올해 ‘수출의 탑’ 수상 1700여 기업 중 나란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현대차 장재훈 사장, 기아 송호성 사장이 ‘수출의 탑’을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가 200억불 ‘수출의 탑’, 기아가 1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차의 해당기간(2022년 7월1일~2023년 6월30일) 수출 실적은 31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39억달러) 대비 29.6%, 기아는 235억 달러로 전년 동기(180억 달러) 대비 30.7% 각각 증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원형사진) 송호성 기아 사장.

가했다.

현대차·기아는 지정학적 위기, 보호무역 심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현대차·기아의 수출 약진은 고부가가치 차종 비중 확대와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 출시, 글로벌 판매 확대 등이 수익으로 이어진 덕분이다.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적용 모델이 전 세계 시장에서 호평 받

며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두 회사 전기차 수출은 2020년 11만9569대에서 지난해 21만8241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대차·기아는 전동화 전환에 따른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울산공장 내 연산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기아는 지난 4월 오토랜드 화설레 연산 15만대 규모의 소비자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오

토랜드 광명은 일부 생산 라인을 전기차용으로 바꿨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판매 확대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한 신규 해외 거점 진출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품 라인업 강화, 고객 경험 확대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차는 환경에 민감한 유럽 시장에서 아이오닉 5 등을 앞세워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직전년도 대비 9.7% 성장했다.

미국시장에서는 특히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 증가가 눈에 띄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2년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주요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무역수지 기여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모두 합쳐 48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293억 달러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톱3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생산·조세·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생산 면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12.1%, 세수 면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10.8%,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 기여도도 높다. 자동차 산업 고용 인원은 약 33만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294만명의 11.2%에 달한다.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서 약 15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 있다. 평균임금도 제조업 전체의 약 12%를 상회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판매믹스 개선과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로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 영일만 산단에 ‘산소공장’ 세운다

연산 25만t 규모 산소·질소 생산 “국내 산업가스 시장 경쟁력 강화”

포스코가 산소공장을 착공해 연간 25만t의 산소·질소를 생산한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연산 25만t 규모의 상업용 가스 생산 설비를 착공했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는 약 1000억원을 투자해 5천평 부지에 산소공장을 신설하고 공기 중의 산소와 질소를 분리, 정제하는 공기 분리장치와 액체산소 2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저장탱크 등을 설치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대형 저장탱크를 먼저 설치하고 2025년 하반기까지 ASU 설비를 준공해 이차전지의 핵심소재

인 양극재, 전구체 생산공정 및 니켈 정제공정에 사용될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인 포스코퓨처엠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산업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에 신설되는 ASU와 대형 저장탱크를 통해 연간 양극재는 10만t, 순니켈은 5만t, 전구체는 11만t까지 공급할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국내 산업가스 시장은 해외 및 사모펀드 소유 기업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산업가스 공급 확대를 본격화한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포항·광양 제철소에 산소공장 총 22개를 보유한 포스코는 연간 약 1700만t의 산업용 가스를 생산 중으로 1600만t은 철강 생산 과정에 사용하고 이 외에는 외부로 판매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포항 청림사업장과 광양 동호안 인근의 SNNC 등에는 기체 상태의 산소·질소를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가스는 액화시켜 탱크 로리를 이용해 중소 충전소와 가스 판매 업체로 판매 중이다.

포스코는 향후 수요처 인근에 ASU 설비 확대를 지속 모색하고 회귀가스와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한 특수가스 상용화를 통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SKT,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5G 전환

300~400Mbps 급 서비스 제공

전국 시내버스 내에서 제공되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기존 LTE 속도에서 5G로 전환돼 평균 4배 빨라진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버스공공와이파이 5G 전환 사업의 2,3차 사업을 맡아 전국 16여개 지자체의 시내버스 와이파이 장비 구축을 12월 초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일 국립고궁박물관 내에서 개통 행사를 갖고, 5G 버스 와이파이 서비스 정식 개통을 선언했다.

이번 5G 전환으로 인해 버스 와이파이 이는 기존 4세대 LTE 백 킬로바이트 약 4배 이상 빠른 300~400Mbps 급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며,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른쪽 맨앞)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공공와이파이 민생현장 소통’에서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신용식 SK텔레콤 커넥티비티 CO장(부사장)은 “기존 LTE 기반의 버스공공 와이파이서비스를 5G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체감 품질 강화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 1등 이동통신사로서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차원의 사업도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청년 60% “채용·기업정보 획득 어려워”

중기중앙회 “세분화 지원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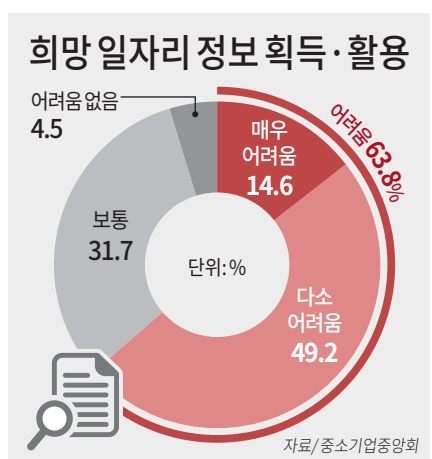
청년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채용·기업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내놓은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63.8%는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획득이나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전년도 조사에서는 청년 구직자가 구직활동 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업정보 입수’(29.4%)와 ‘채용정보 획득’(20.6%)을 꼽았다. 올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63.8%)는 답이 가장 많았다.

여전히 청년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구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정보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과 채용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는 채용정보 사이트(60.7%)였다. 다음으로 기업 홈페이지(42.7%),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36.5%), 교내 취업지원센터(33.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모든 정보 취득 경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다.

대부분의 정보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위주로 편성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학력별 채용정보 취득 경로 개발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구직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책의 활용률이 낮은 만큼 학력별·계층별 청년구직자의 현황을 분석해 세분화된 지원정책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현대모비스, ‘의왕 전동화 연구동’ 개소

이규석 사장 “전동화 혁신기지 활용”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전용 연구 공간을 만들고 ‘뉴 모비스’ 비전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현대모비스는 5일 경기도 의왕연구소에 ‘전동화 연구동’ 설립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동화 연구동은 전동화 부품 개발을 위해 시험과 성능 평가, 품질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곳이다. 2만1600평 규모에 지하4층, 지상 5층 규모로 시험동과 품질분석동 등 부속 건물도 함께 만들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전동화 연구동 설립을 계기로 전문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수 인력들을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글로벌 전동화 기술 개발 핵심 연구 센터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이규석 사장은 이날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전동화 연구동은 최적의 연구 환경을 갖춘 차세대 전동화 기술의 전략 거점”이라며 “전문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집중해 전동화 분야 혁신 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juk@